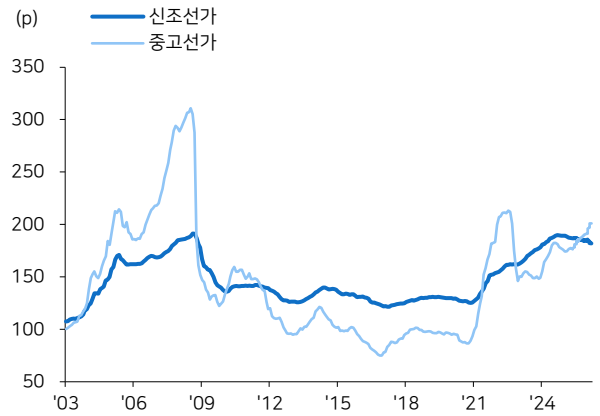
2026. 3. 12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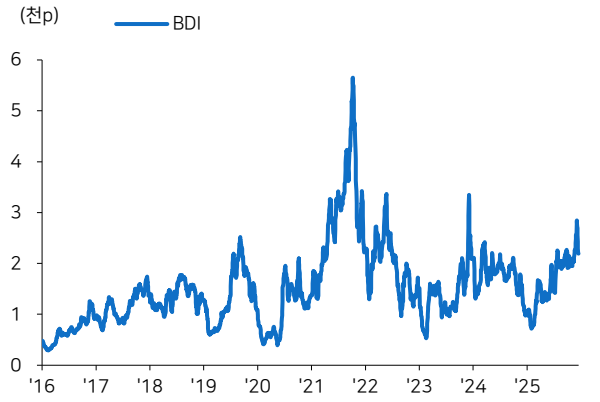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0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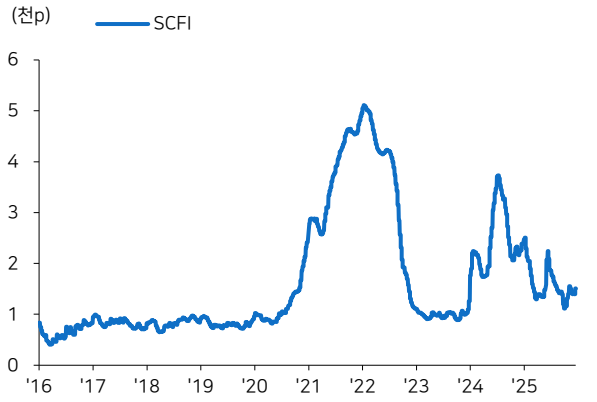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3.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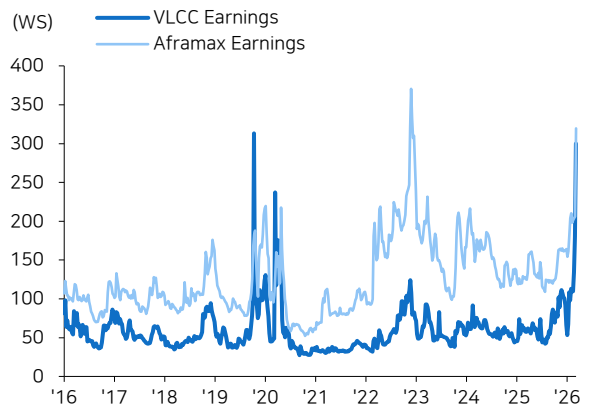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19.0p (-14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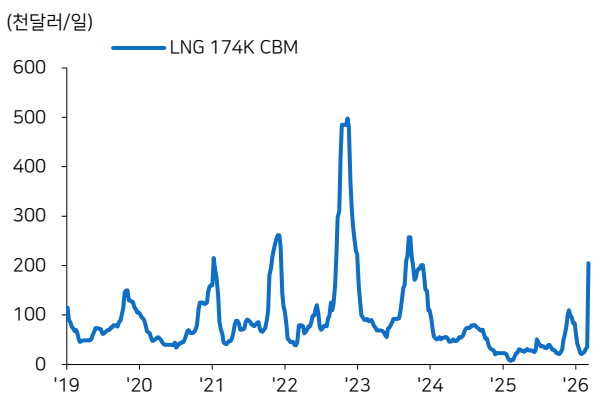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89.2p (+156.1p WoW)



VLCC Spot Rate 300.0WS (+119.9p WoW)



LNG Spot 운임 205.5천달러 (+169.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필리조선소, 美 다목적 훈련함 세번째 인도...차세대 해양 인력 양성 지원 (더구루) https://zrr.kr/Ve2UGG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해사청의 의뢰를 받아 건조한 세 번째 다목적 훈련함인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를 토트서비스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인도한다고 보도됨. 해당 함정은 차세대 상선 장교 양성을 위한 현대적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한화필리조선소는 첨단 건조 방식을 통해 복잡한 특수 목적 선박을 적기에 인도하며 미국 내 해상 경쟁력 강화와 조선 역량 입증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해짐.

US Navy Strikes Another Iranian Catamaran Corvette (Naval News) https://zrr.kr/jJG5Ng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으로 이란의 최첨단 초계함인 IRIS Haj Qasem이 반다르 렝게에서 폭격당했으며, 이로써 이란의 정예 미사일 초계함 전력이 단 3~4척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알려짐. 작전 개시 이후 자마란급 호위함과 드론 항공모함 등 30척 이상의 이란 함정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항구 내 정박 중인 함정을 정밀 타격하는 전략이 해군 전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됨.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고속정, 지대함 미사일, 무인 시스템 등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페르시아만 내 해상 위협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해짐.

조선업 외국 전문인력 확대한다...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추진 (연합뉴스) https://zrr.kr/JSc3Az

법무부가 조선업계의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외국 기능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 질적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현장 간담회에 따르면 일반기능인력 고용 허용 비율 조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체류 인력 중심의 제도 운영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조선업계의 국민 고용 확대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전해짐.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국민과 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방한 가나 대통령,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찾는다 (아이뉴스 24) https://zrr.kr/vmoNDH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이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가나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기 위한 선박의 명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이번 방문은 가나가 현대적인 항만 인프라 구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해양 부문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고 보도됨. 방한 기간 중 마하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해양 안보 및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고 전해짐.

Kraken wins Royal Navy contract to deliver 20 USV (Naval News) https://zrr.kr/trfJs8

영국 국방부는 해군을 유 · 무인 '하이브리드' 함대로 전환하기 위해 Kraken Technology Group과 1,230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영국산 첨단 모듈형 무인 수상정(USV) 20척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짐. 이번 계약은 '프로젝트 비하이브'의 일환으로 무인 플랫폼 인도뿐만 아니라 훈련, 전술 개발 등 자율 해양 기술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와의 협력에 이어 Kraken사의 NATO 내 기술적 영향력을 입증했다고 보도됨. 영국 정부는 전 세계적인 위협에 맞서 자율 함정을 통해 기존 군함의 역량을 보완하고 선원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며,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배치를 통해 미래 해군력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해짐.

Australia orders fleet of 40 Bluebottle uncrewed surface vessels (Naval News) https://zrr.kr/Ncs3JW

호주 알바니지 정부가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1억 7,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호주가 독자 설계 · 건조한 '블루보틀' 무인 수상정(USV) 40척을 추가 도입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독자적 무인 함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짐. 재생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블루보틀 USV는 광활한 호주 해역에서 장거리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이번 투자를 통해 시드니와 헌터 지역에 첨단 제조 시설과 숙련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정부는 자율 시스템 개발 가속화가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핵심 국방 전략임을 강조하며, 향후 5년 이상 호주 북부 해역의 감시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블루보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